

대조주제의 주제성과 초점성

위혜경*†

단국대학교

Hae-Kyung Wee. 2010. Topicality and Focality of Contrastive Topic. *Language and Information* 14.2, 47–7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mantic and prosodic properties of the so-called *contrastive topic*. We posit two informational primitives, namely, topical feature [+T] and focal feature [+F], from which four different informational categories, i.e., [+T, +F], [+T, -F], [-T, +F], and [-T, -F], are yielded. It is proposed that the informational category of *contrastive topic* has focal property [+F] as well as topical property [+T]. Based on the semantic approach that regards the function of [+F] as *identificational predication* and that of [+T] as forming a *semantic conditional clause*, it is shown that the semantic function of *contrastive topic*, which is specified as [+T, +F], i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functions, i.e., *identificational predication in a semantic conditional clause*. This is supported by a scrutinized exploration of the prosodic pattern of English *contrastive topic*. (Dankook University)

Key words: topic, contrastive topic, focus, prosody, information structure

1. 서론

한국어는 형태소인 조사 ‘-은/는’에 의해서 서구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주제어라는 정보적 범주를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형태소로 표시되는 주제어에는 일반 주제어와 대조주제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대조주제어에 대하여 관심을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비록 형태소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구어에서도 대조주제의 의미는 억양이라는 방법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대조주제어의 의미적 역할과 음성적 특징을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를 통해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라는 언어 표현적 범주는 서구어에서는 형태소로 존재하지 않아 운율에 대한 고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은/는’ 또는 ‘-wa’라는 특정 형태소가 나타나는 한국어나 일본어 등의 언어들 위주로 의미적 통사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자세한 논평과 지적으로 논문의 완성도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 또 이 연구들도 비형식적 언어 이론들, 즉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담화 분석적 연구 방법론으로 다루어져 왔었고, Montague 의미론이나 생성 문법 등의 형식 문법 이론들에서는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 현상이 서구어에서는 관찰되기가 어려워 그에 대한 흥미 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고, 또 이는 언어 표현의 약정적 (conventional) 의미로서가 아니라 화용적, 대화적 (conversational) 의미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진리조건적 형식 의미론이나 통사구조에 바탕을 둔 생성 문법이 다루어야 할 대상 밖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억양에서 발생하는 의미도 다분히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미로서 약정적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Pierrehumbert (1981) 이후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 등의 음운론적 억양 이론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억양에 의해 표시되는 의미의 하나로 주제어를 형식의미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Büring (1994, 2003)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는 동안 제시된 주제어의 정의에는 담화 의미론적으로는 문장이 그 주제에 ‘대하여’ 기술하는 대상이라는 Reinhart (1981)의 ‘aboutness’ 개념이 있고, 형식의미론적으로는 대체 의미론에 바탕을 둔 Büring (1994)의 담화주제 (D-topic) 나 Roberts (1996)의 ‘question under discussion’으로 표현되는 ‘질문의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다. Kuroda (1972)는 주제어의 기능을 정렬기준 (sortal ke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주제어라는 범주는 일관성 있게 정의하기도 그 실체를 포착하기도 어려운 개념으로 남아 있다. 형태소로 존재하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도 그 의미적 정의를 내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이견이 있으며 형태소로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제어에 대한 개념과 형식화는 대체로 합일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로 시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주제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조주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주제어에 대한 개념 정의만을 시도하겠고 이에 근거하여 대조주제에 대한 초점과의 통합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제어라는 개념은 흔히 인식하듯이 초점과 대별되는 현상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제어와 초점은 동시에 한 표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조주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영어의 대조주제 억양에 대한 음성적 고찰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독일어에서 발생하는 대조주제를 관찰하여 대조주제가 초점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대조주제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입장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3절에서는 대조주제의 초점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초점의 의미를 정체확인 서술의 의미적 기능으로 분석하는 초점 이론을 소개

하고 이를 대조주제의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의 분석 방법이 대조주제의 주제로서의 성질과 초점으로서의 성질 그리고 대조의 의미를 모두 포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의미들이 모두 음성학적 관찰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음을 보인다. 5절은 요약과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2. 대조주제

2.1 대조주제의 특징

Kuroda는 정렬기준(sortal key)이라는 개념으로 주제의 의미를 제시했는데, 어떤 항목들을 나열할 때 그 목록을 정렬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하여 우선 Kuroda의 정렬기준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의를 시작하여, 대조주제가 여러 언어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의미적, 운율적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영어에서 발생하는 대조주제 현상을 살펴보겠다.

아래 질문 (1Q)에 대한 대답으로 (1A)를 고려해 보면 주어는 Bill의 sister 중에서 youngest sister를 지목하여 다른 sister들과의 대조의 의미를 일으킨다. 음성적으로 하강-상승(~)의 어조로 발화되어, 목적어 John의 어조인 고성조-하강(↘)과는 구별된다.

(1) Q: What did Bill's sisters do?

A: Bill's YOUNGEST sister~ kissed JOHN↘.

이때 주어에 나타나는 하강-상승 어조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Bolinger (1961)와 Jackendoff (1972)가 B-강세 (B-accent, ~로 표시)라고 칭하였고, 그 후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억양이다.

(2) Context: *Who ate what?*

A: Well, what about FRED? What did he eat?

B: FRED~ ate the BEANS↘

“Fred는 콩을 먹었어.”

주어진 문맥에서 화자 A는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의 목록을 사람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질문하고 화자 B도 이에 대해 사람을 기준으로 대답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항목인 Fred가 영어에서 하강-상승의 B-강세로 표시된다. 반면, 그 기준 항목에 대한 대답이 되는 beans에는 Jackendoff가 A-강세 (A-accent, ↘로 표시)라고 칭하는 하강의 억양 강세가 나타난다. 반면, 아래 (3)에서는 화자 A가 음식을 정렬기준으로 질문을 하고 화자 B도 음식을 기준으로 대답한다. 이때는 음식의 종류가 B-강세를 받고 사람인 Fred가 A-강세를 받는다.¹

¹ Jackendoff (1972)는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3) A: Well, what about the BEANS? Who ate them?

B: FRED \ ate the BEANS~.

“콩은 Fred가 먹었어.”

여기서 발생하는 B-강세들이 모두 Kuroda의 ‘정렬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B-강세는 주제어(topic)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강세로 표시된 항목은 다른 대체 가능한 후보 항목들과 대조되어 예문(3)에서 ‘콩은 Fred가 먹었고, 다른 음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콩은 담화상의 다른 음식과 대조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대조주제의 기능을 갖는 ‘-은/는’, ‘-wa’의 의미와 상응한다. 정렬기준이라는 해석을 유발한다는 사실과 한국어의 ‘-은/는’과 상응한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영어의 B-강세로 표시된 항목을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에 상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²

Büring (1997)은 독일어 문장에 대한 다음의 영어 번역문을 통해 독일어에서 문장주제(s-topic)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표현이 저-고의 음성적 강세(L-H* accent)로 표시된다고 한다.

(4) On fifty-NINTH street I bought the SHOES

fronted PP “On 59th street”: L-H*

direct object “the shoes”: H-L*

“59번가에서는 신발을 샀다.”

문두 이동한 전치사구인 ‘59번가에서는’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독일어 표현이 L-H*의 저-고의 강세를 갖게 되고 이러한 강세로 발화되는 표현을 Büring (1994)은 “s-topic (문장 주제)”이라고 불렀다. 이도 역시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물건을 샀을 것이라는 대조의 의미와 산 물건에 대한 정렬기준의 의미가 들어 있어 독일어의 L-H* 강세도 영어의 B-강세와 마찬가지로 대조주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예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 문장에서 대조주제에 해당하는 ‘-은/는’ 구문은 모두 강한 음성적 강세를 띠게 된다.³

이상의 관찰에서 주목할 점은 대조주제 현상은 한국어나 영어, 독일어에서 모두 음성적 강세에 의해서 혹은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성적 강세를 동반하는 표현은 주제라고 불리우지 않고 초점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대조주제는 정렬기준이라는 주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세에 의해 표현

“The typical fall-rise of the B pitch accent and the fall of the A accent, but in different positions:
(2) has B on *Fred* and A on *beans*, and (3) is the other way around.” (Jackendoff 1972:261)

² 이는 줄고 Wee (1996, 1998)에서부터 취한 입장이다.

³ 한국어의 ‘은/는’ 구문의 대조주제의 의미는 강세를 동반한다고 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cf. Lee 1998).

되는 초점이라는 성질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조주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

- (5) a. 대조주제는 정렬기준을 제시하는 주제어(topic)의 일종이다.
 b. 대조주제는 음성적 강세를 받는 초점(focus)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대조주제라는 의미 현상에 대한 분석은 위의 두 가지 사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조주제 현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시적으로) 포착하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조주제에 대한 연구의 입장은 위의 두 측면 중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의미론이나 기능주의 연구 분야에서 취하는 입장은 대조주제의 주제로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고, 통사론 분야의 연구들은 반대로 초점의 일종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우선 전자의 입장을 살펴 보면, 초점 현상은 주제어라는 범주와는 서로 대별되는 현상으로서 한 표현에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보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띤다. 그래서 위의 (2-3)과 같은 영어 예문에서도 B-강세는 주제를, A-강세는 초점을 이루어 문장이 ‘topic-focus’의 이분화된 정보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다. 즉, B-강세의 초점으로서의 기능에는 주목하지 않고, 주제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B-강세도 결국은 음성적 강세라는 점에서 초점의 일종이고 초점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제어를 초점과 대척점에 있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대조주제의 초점의 기능을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은 2.2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후자의 입장을 보면, 대조주제의 강세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강세의 종류에 대한 예민한 관찰을 전제로 하지 않고 B-강세와 A-강세를 의미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서 그 강세가 B-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초점으로만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형태소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더욱 흔히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는 형태소 ‘-은/는’으로 표시되는 한국어에서 조차도 내포문이나 동사구등과 같이 문두에 나타나지 않는 ‘-은/는’ 구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의미를 간과하고 초점으로만 분석하는 입장이 특히 통사론적 연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cf. Han 1998, Choi 1999)

영어의 경우에는 의미론적 분석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발견되는데, 그 한가지 예로서 Rooth (1992)의 분석을 들 수 있다. Rooth는 “I PASSED.” 라는 문장에서 passed에 특정한 억양이 동반될 때는 그 의미가 ‘I barely passed(, but didn’t ace).’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관찰한다. 이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겨우 붙기는 했다. (아주 잘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동사에 대조주제 조사인 ‘-는’이 붙은 것

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잘 포착된다.⁴ Rooth는 이를 일반적인 초점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초점 해석 규칙 (focus interpretation rule)을 적용하면서 이 특정 의미는 문맥에 따라 나타나는 화용적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억양은 B-강세와 상당히 비슷한 하강-상승의 억양으로서 위의 (2-3) 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특정 억양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주제어의 의미, 즉, 한국어의 ‘-은/는’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한국어의 형태소와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억양으로 인한 의미는 화용적 의미가 아닌 그 억양 특유의 약정적 (conventional) 의미라고 봐야 한다. 즉, 이 억양으로 표시된 구는 Rooth가 관찰한대로 초점이라는 점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주제어이기도 한 대조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oth는 이런 주제어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초점의 일종으로 분석하고 만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B-강세는 영어의 경우에서 A-강세의 초점과 화용적 차이만을 갖는 초점의 일종으로 쉽게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초점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B-강세의 다른 이름인 대조주제어는 ‘topic’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focus’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러한 주제어로서의 의미와 초점으로서의 의미를 대조주제의 의미 해석에서 적절히 포착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초점 현상은 음성적 강세에 의해 표시되는 특정 담화 정보적 의미를 지니는 현상이며, 주제라는 현상과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표현은 주제어이면서도 동시에 초점일 수도 있으며, 대조주제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조주제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초점이기도 한 정보적 범주를 지칭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리고 운율적으로 초점으로서의 특질과

⁴ 한 익명의 심사자에 따르면 이 경우 ‘겨우 불기만 했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 *only*와 같은 명시적인 표현이 없이 *passed*에 동반되는 특별한 운율만 (이 경우는 하강-상승의 B-강세와 비슷한 운율) 가지고는 한국어의 ‘-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A: 시험에 붙었니? 상도 받았어?

B: 붙기는 했어. 상은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잘 몰라.

B': ? 겨우 불기만 했어. 상은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잘 몰라.

A: Did you pass the exam? Did you get an award?

B: I PASSED[~]. And it is possible to get an award but I'm not sure yet.

B': ?I **only** passed. And it is possible to get an award but I'm not sure yet.

시험에 붙고 상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붙기는 했고 상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붙기만 했다고 하면서 상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붙기만 했다는 것은 이 문맥에서 상은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똑 같은 현상이 영어의 강세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B-강세를 가지고 대답한 B의 대답은 상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only*를 포함한 대답은 그것을 배제한다. 따라서 B-강세를 ‘만’이라는 배타성의 부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물론, 한국어의 ‘은/는’이나 영어의 B-강세 표현 뒤에 뒤의 문장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는 Rooth의 해석대로 ‘겨우 붙기는 했지만, 상은 못 받았다’는 함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도 역시 한국어와 영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B-강세와 ‘-은/는’간의 상응성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theme’은 주제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rheme’이 초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대조주제어인 Bill’s youngest sister는 주제어로서만 취급되고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포착하지는 못하게 된다.

Büring (1994, 2003)도 세 개의 정보 범주를 제시한다. Büring은 주제를 Rooth (1985, 1992)의 대체 의미론 (Alternative Semantics)의 틀을 따라 문장의 일반의미치와 더불어 초점의미치 (focus semantic)/ 주제의미치 (topic semantic value)라는 부가적인 의미치를 설정해서 다차원적 의미치의 존재를 통해 초점/주제가 문장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초점이나 주제는 문장 내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발생하는 문맥의 유형을 알려 주는 문장 외적 역할만을 하는 존재이다. 즉, 아래 예에서 초점 John을 포함하는 (9B)의 문장이 (9A)라는 문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초점의미치라는 부가적 의미치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때 (9A)와 같은 의문문을 담화 주제, 혹은 D-주제 (D-topic)라 부르고, 그 대답인 초점 문장인 (9B)의 초점 의미치가 D-주제인 의문문의 일반 의미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치하는 경우 초점 문장의 적정성이 허가를 받는다.

- (9) A: Who did Bill’s sisters kiss? : D-topic
 B: They kissed [JOHN]_F. : Focus

(10B)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조주제를 포함하는 문장인데, 이때 주어진 D-주제인 의문문 (10A)는 (10B)의 문장을 바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 (10) A: Who did Bill’s sisters kiss?
 B: [Bill’s youngest sister]_T kissed [JOHN]_F. (S-topic)

주어에 억양으로 표시된 주제 표시로 인해 (10B)의 문장은 ‘주제 의미치’라는 부가 의미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것은 (10A)의 D-주제를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작은 D-주제로 나누어, 이들 작은 의문문 중 하나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표시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표시를 하는 기능이 바로 Büring이 제시하는 주제의미치이다.

- (11)
- ```

 Who did Bill’s sisters kiss?
 / \
 Who did Bill’s oldest sister kiss? Who did Bill’s youngest sister kiss? ...
 | |
 [Bill’s oldest sister]T kissed [FRED]F [Bill’s youngest sister]T kissed [JOHN]F

```

이때 (10B)의 주어와 같이 잘게 나누어진 작은 의문문 중 하나에 대한 답에 표시 되는 주제어를 Büring (1994)은 ‘S-topic’(문장주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아니다. 본 연구는 [F] 자질과 [T] 자질을 필자가 이전의 연구에서부터 제안해 오던 초점과 주제의 의미적 기능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설정하여, 대조주제가 초점성의 의미와 주제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T, +F]를 사용한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한 점은 자질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역양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미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여 필자가 본 연구와 이전 연구에서부터 주장하는 주제성과 초점성의 의미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보이고자 함에 있다.

### 3. 초점 자질과 주제 자질

이번 절에서는 우선 줄고 (2007b)에서 제안한 정보 범주의 유형을 요약하고, 초점의 의미 분석 방법을 제시하며 이에 근거한 주제어에 대한 의미 분석을 제안한다.

#### 3.1 정보 자질 (Informational primitives)

문장의 정보 범주는 주제자질 [+T]와 초점자질 [+F]의 두 정보 자질의 네 가지 가능한 논리적 조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12) 정보 범주: [+T, +F], [+T, -F], [-T, -F], [-T, +F]

각각의 조합은 하나의 정보 범주를 표시하게 되어, 두 개의 자질로 네 가지의 가능한 정보 범주를 표시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문장의 정보 구조는 위 네 가지의 정보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장내의 각 표현들은 그 중의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명명하면서, 영어와 한국어에 구현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sup>6</sup> 한 익명의 심사자는, 여기서 제시하는 [T]와 [F] 자질이 Choi (1999)의 [prominent]와 [new] 자질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prominent] 자질은 여기서의 [T] 자질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2,3)에서와 같은 대조주제에 대한 자질 설정도 본 연구는 [+T, +F]인 반면, Choi에 따르면 [+prominent, -new]로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Choi는 대조주제가 문장의 문두에 오지 않고 중간에 오는 경우, 예를 들어, ‘인수가 수미는 만났다’에서 ‘수미는’은 주제의 의미는 없이 초점의 의미만 가지게 되어 대조초점 (contrastive focus)과 같이 [+new, +prominent]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수가 영화를 만났게 아니라) 인수가 [수미를]F 만났다.’와 같은 문장에서 대조초점 ‘수미를’의 의미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이는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된 의미의 차이를 무시하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강세를 받는 ‘은/는’으로 표시되는 대조주제어는 위치와 상관없이 [+T, +F]의 의미자질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위의 문장은 (2,3)에서와 같이 A-강세와 연결된 초점이 따로 나타나는 문장과는 달리 ‘수미는’이 문장 내에서 유일하게 초점 강세를 받아 초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조 초점과 동일시하는 주장이 간혹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는’의 주제성의 의미를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이다. 대조주제가 문장의 유일한 초점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여전히 대조주제로서 [+T]의 주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고, 이러한 문장의 유일한 초점으로서의 대조주제의 의미 분석에 대해서는 줄고 (2007a)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 3절에서 제시될 대조주제의 의미 기능, 즉 ‘의미적 조건절 내에서의 초점 기능’에 대한 분석과 동적 의미론적 형식화를 제시한 바 있다.

(13) 정보범주의 구현방법

| F \ T | +                                                                                        | -                                                           |
|-------|------------------------------------------------------------------------------------------|-------------------------------------------------------------|
| +     | <b>대조주제 (contrastive topic)</b><br>- 한국어: 강세 받는 은/는<br>- 영어: L+H*LH% (B-강세) <sup>8</sup> | <b>초점 (focus)<sup>7</sup></b><br>- H* 강세로 표시                |
| -     | <b>(일반) 주제 (topic)</b><br>- 한국어: 강세 없는 은/는<br>- 영어: 주어 (당연 주제어) <sup>10</sup>            | <b>주제도 초점도 아닌 그 외의 부분<sup>9</sup></b><br>- 반강세 (deaccented) |

이제 각각의 자질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3.2 의미적 술어로서의 초점

먼저 [+F] 라는 자질을 통해서 초점의 정의를 제시해 보자.

(14) 초점:

- i) 강세 H\*로 표시된 단어나 단어를 포함하는 통사적 구성소 (syntactic constituent)<sup>11</sup>
- ii) 의미적으로 [+F]의 의미 정보적 자질을 가짐.

위의 기술은 음성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초점이 정의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F]의 정보 자질을 갖는다는 사실만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F] 자질이 갖는 의미적 기능이 무엇인지 제시하겠다.

초점의 의미적 분석은 Rooth (1992, 1996)의 대체 의미론적 분석이나 Krifka (1992, 2006) 등의 구조화 의미 이론적 분석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점의 의미적 기능을 정체 확인의 서술로 보는 이론을 채택하여 대조주제의 분석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초점의 기능을 의미적 서술어로 보는 입장은 Paul (1988) 이래로 많은 문헌에서 발견되었으나 형식언어학적으로 그와 같은 분석을 제시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Kenesei (2006)는 초점의 기능을 정체확인 (identification)으로 주

<sup>7</sup> [-T, +F]의 범주는 전체 나열 (exhaustive listing)의 의미를 갖거나 대조초점 (contrastive focus)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sup>8</sup> 4절에서 운율적 용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sup>9</sup> [-T, -F] 범주는 Steedman (2000)의 'null theme'이나 Vallduvi의 'tail' 부분과 일치한다.

<sup>10</sup> Hajicova, Partee & Sgall (1998)에 의하면 영어와 독일 등의 언어에서 주어는 당연 주제어 (default topic)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sup>11</sup> 음절에 구현된 음성적 강세가 통사적 구성소로 투사되는 과정의 세부사항은 그 한가지만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나 여기에서는 Selkirk 1996, Schwartzchild 1999의 'F-표시 (F-marked)'의 정의를 참조 바람.

장하고, E Kiss (2006)는 서술어 (predication)로서의 초점의 기능을 통사 구조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졸고 (1999, 2001, 2003)에서는 담화 표상 이론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의 동적 의미론의 방법으로 초점의 정체 확인의 서술적 분석을 제시했다. 아래에서는 이 분석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조 주제를 분석하겠다.<sup>12</sup>

[+F]의 자질을 갖는 구성소로 정의된 초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적 기능을 지닌다.

### (15) 초점의 의미

초점은 초점틀(초점을 뺀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의해 표현되는 자질을 만족시키는 지시체(old referent)에 대한 정체 확인의 서술어이다.

일반화 하면, 초점은 초점 구성소  $a$ 를 가지는 문장  $S$ 가 있을 때,  $\lambda xS_{[a/x]}$ 의 자질을 만족시키는 한정(definite) 표현  $the\ x$ 의 정체를 초점  $a$ 로 확인 서술해주는 기능이다.<sup>13</sup> 이 방법에 의하면 음성적 강제로 표시되는 초점은 의미적으로는 문장에서 초점을 뺀 나머지 부분, 즉 초점틀(focus frame)의 의미를 자질로 갖는 한정적 변항의 — 예를 들어 (16)의 경우,  $the\ x\ such\ that\ John\ ate\ x$ 의 변항  $x$ 의 — 정체를 초점인  $the\ pie$ 로 확인하는 서술 기능을 한다.

(16) John ate [the PIE]<sub>F</sub>.

(17) a. John ate  $x$ .      b. the  $x = the\ pie$

즉, 열린 명제 (17a)의 변항  $x$ 에 대하여 초점  $the\ pie$ 가 (17b)와 같이 정체확인 서술을 해 주는 것이다.

<sup>12</sup> 초점의 의미적 기능을 정체확인 서술로 분석하는 방법은 Chomsky (1971)로 거슬러 올라간다. Chomsky (197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iB) (iiB)의 초점의 차이는 (iiiA,b)와 같은 의미해석을 통해서 구별된다.

(i) A: Who ate the pie?      B: [JOHN]<sub>F</sub> ate the pie.

(ii) A: What did John eat?      B: John ate [the PIE]<sub>F</sub>.

(iii) a. the  $x$ , such that  $x$  ate the pie, is John.

b. the  $x$ , such that John ate  $x$ , is the pie.

<sup>13</sup> 이를 좀 더 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초점  $a$ 를 포함하는 문장  $S\ s[\dots a_F \dots]$ 에서 ‘비초점’ 부분(초점틀)과 ‘초점’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진 의미부는 다음과 같다.

(i) 초점틀:  $\max\ \lambda xS_{[a/x]}$       (ii) 초점:  $\lambda y(y=a)$

$S_{[a/x]}$ 는  $a$ 라는 초점 표현 대신 변항  $x$ 로 대치시켜 얻은 열린 문장을 의미한다.  $\max$ 라는 최대항 운용소(maximality operator)는 Rullman (1995)이 한정 표현(definite description)의 특성성(uniqueness)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운용소로서 초점틀에 의해 표시된 자질, 즉,  $\lambda xS_{[x/a]}$ 을 만족시키는 최대치를 표시한다. 초점틀의 의미를 ‘John ate [the PIE]<sub>F</sub>’에 적용시키면  $\max(\lambda x[\text{John ate } (x)])$ 라는 의미, 즉, ‘John이 먹은 그것’이라는 의미에 해당하고, 초점 부분은  $\lambda y(y=the\ pie)$ , 즉, ‘파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초점의 의미를 초점틀의 의미에 함수적용(function application)시키면 (iii)과 같고 람다 변환되어 (iv)로 귀결된다.

(iii)  $\lambda y(y=the\ pie)[\max(\lambda x[\text{John ate } (x)])]$ ; 람다 변환

(iv)  $\max(\lambda x[\text{John ate } (x)])=the\ pie$

이렇게 주어진 초점의 의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주제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서 대조주제가 왜 초점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는 초점이 대조주제에서 발생할 경우 어떤 의미적 특질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겠다.

### 3.3 대조주제의 주제성 [+T] 과 초점성 [+F]

주제어의 분석도 형식의미론적으로는 Büring (1994, 2003) 에서와 같이 대체집합적 분석이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점의 이론도 대체집합적 분석을 채택하지 않았고, 대조주제의 분석을 위해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여, 주제 자질 [+T]의 역할을 제시해 보겠다.

우선, 주제어는 앞서 제시된 초점의 정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8) 주제

- i) 상승 (LH%)의 경계음조 (boundary tone)를 갖는 문장내의 통사적 구성소.
- ii) 의미적으로 [+T]의 의미 정보적 자질을 가짐.

이제 초점에서와 같이 [+T]라는 의미 정보 자질의 기능을 알아보자. 1절에서 잠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주제의 기능을 간단히 정렬기준 (sortal key)이라는 Kuroda의 개념을 빌어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담화 기능적인 관점의 개념이므로, 이 개념을 문장 의미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문장을 조건절과 주절의 의미구조로 나누어 조건절을 형성한다는 Kuroda (1972)가 제시한 주제의 문장내적 의미 기능을 채택 하겠다.

#### (19) 주제 (topic)의 의미: 의미적 조건절 형성.

이를 근거로 줄고 (2001)에서 대조주제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20) 대조주제의 의미적 기능

문장을 조건절과 주절의 의미구조로 나누어 조건절에서 발생시킨 초점.  
(identificational predication in a semantic conditional clause)

즉, 대조주제는 문장의 논리 구조상 조건절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주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초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초점의 기능을 “정체확인 서술”의 기능이라고 제안했고, 따라서 대조주제의 의미 기능은 “의미적 조건절내에서의 정체확인 서술”이라는 초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2절의 대조주제 현상에 대한 관찰과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주제의 의미적 성분을 모두 정리해 보면, 대조주제는 i) 대조의 의미, ii) 초점의 의미, 그리고

iii) 조건절의 구조라는 세가지 측면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의미 성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먼저 대조주제가 초점의 성질을 지닌다는 주장에 대한 담화적 근거를 확인한 후, 영어의 대조주제에 해당하는 B-강세에 대한 운율적 분석을 통해 이 세가지 의미적 성분에 대한 근거를 차례로 제시하겠다.

#### 4. 대조주제의 초점성, 대조성, 그리고 주제성

##### 4.1 초점성의 담화적 근거

우선 담화적으로 대조주제가 왜 초점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초점은 담화적으로 볼 때 Rochemont (1986) 등 많은 문헌에 따르면 이전 문맥에서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Carlson (1983)은 영어에서의 (21)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좌측 전위 (left dislocation)된 영어 구문을 주제 (topic)라고 부르면서 이 주제어가 구정보 (old information)이면서 동시에 신정보 (new information)라고 주장한다.

- (21)
- Where did you find the examples?
- 
- These examples, I found in Gundel                      Other examples, I found in ....

여기서 “these examples”와 “other examples”는 질문에서 제시하는 “the examples”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정보 혹은 주어진 정보 (given 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정보를 그대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보의 일부만을 골라 전체 ‘examples’ 중에서 ‘these examples’만을, 또는 ‘those examples’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신정보 (new information)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문을 통해 Carlson이 topic이라 부르는 표현의 의미는 한국어로 ‘이 예문들은...’, 그리고 ‘다른 예문들은...’으로 대조되는 의미와 앞서 논의한 정렬기준의 의미를 가지면서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조주제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라는 구조는 Jackendoff의 대화 (2-3)의 구조와 (11)에서 Büring이 제시하는 구조와도 같은 담화 구조를 표현하는 것으로 위에서 다른 대조주제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조주제라는 것이 이전 담화에서 제시된 구정보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같은 정보가 아닌 구 정보의 일부만을 선택 표시한다는 점에서 신정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고, 그러한 점에서 대조주제가 신정보를 표시하는 초점의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대조주제가 i) 대조의 의미, ii) 초점의 의미, 그리고 iii) 조건절의 구조라는 세가지 측면의 합이라는 음성학적 근거를 보자.

#### 4.2 초점성의 음성학적 근거

초점은 음성적 강세 H\*를 받는 구성소라고 정의하였는데, 한국어의 대조주제는 의미적으로 담화상의 대조되는 항목을 암시하면서, 관찰된 대로 조사 ‘-은/는’에 강세가 온다는 점에서 일반주제와 구별이 된다. 그리고 1절에서 본 Büring이 제시하는 독일어의 문장 주제어가 대조주제에 해당하며 특별한 음성적 강세를 동반하고, 그리고 영어의 대조주제에 해당하는 Jackendoff의 B-강세 등이 모두 음성적인 강세를 수반한다. 1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음성적 강세라는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이 표현들이 모두 초점의 기본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소개한 영어의 B-강세가 유발하는 대조주제의 의미가 “의미적 조건절에서 발생하는 초점”이라는 3.2에서 제시한 의미론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음성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영어의 B-강세를 Pierrehumbert (1980)와 Pierrehumbert & Hirschberg (P&H, 1990)의 표기 체계를 빌어 표현하면 L+H\*LH%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22) pitch accent (L+H\*)+ phrase accent (L) + boundary tone (H%)

우선 Pierrehumbert와 P&H의 이론의 중요한 입장은 이러한 음성적 요소들이 모두 한꺼번에 하나의 의미 범주를 구성하는 전체주의적인(holistic)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음성적 요소들이 제각기 표현하는 의미가 있어서 각각의 음성적 요소들이 합쳐지면 그 의미적 요소들도 합성적으로(compositionally) 도출된다는 입장이다. 즉, P&H의 입장을 따르면, 우리의 관심사인 Jackendoff가 B-강세라고 부르는 범주가 대조주제라는 하나의 의미적 범주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B-강세의 패턴을 구성하는 음성적 요소들이 각각 자신의 의미 기능을 지닌 상태로 합성되어 대조주제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음성적 요소들에 대한 P&H가 제시하는 해석이 합성적으로 어떻게 대조주제에 해당하는 의미 해석으로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피치강세(pitch accent)를 이루는 L+H\*에 대해 P&H가 제시하는 해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H\*의 해석을 알아보자. (H 앞에 붙은 \*의 의미는 이 음조가 단어의 스트레스를 받는 음절과 결합된다는 표시로 사용된다.) P&H가 제시하는 H\*의 의미 해석은 다음과 같다.

(23) “The H\* accents .. convey that the items made salient by the H\* are to be treated as “new” in the discourse. . . . signal to the hearer that the open expression is to be instantiated by the accented items”

이 해석에 따르면 열린 표현(open expression)이 H\*의 강세를 받는 표현에 의해서 값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청자에게 표시하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화자와 청자간의 상

호 믿음 (mutual belief) 에 그 정보가 더해져야 한다는 “서술 (predication)” 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다음의 예를 보자.

(24) George likes pie.

H\*                    H\* L L%

(25) x likes y

x(H\*)    y(H\*)

x=George    y=pie

George 와 pie 에 구현된 H\* 의 의미는 (25) 에 제시된 대로 열린 명제 (open proposition) 의 변항인 x와 y 에 대하여 그 값을 제시해주는 서술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피치강세 (pitch accent) 인 H\* 에 대한 P&H 의 해석은 3.1 절에서 제시한 초점의 기능인 정제 확인 서술의 기능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대조주제에서 사용되는 피치강세는 H만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H 앞에 L이 붙은 복합 초점이다. 다음에서는 이 복합 초점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것이 바로 대조주제의 대조성의 의미를 표시해 준다는 사실을 보이겠다.

### 4.3 대조성의 근거

L+H\* 의 강세는 고음 강세 (pitch accent) 인 H\* 앞에 낮은 음조인 L이 결합된 저-고 복합 강세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P&H (1990) 의 해석에 의하면 “.. convey that the accented item- and not some alternative related item- should be predicated.” 라고 한다. 이 해석은 결국 대조의 의미로 귀결된다. 대조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후보 항목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항목이 아닌 한 항목 즉, H\* 와 결합되어 발화된 항목이 선택된다는 표시이다. 그래서 L+H\* 의 강세는 접두음 (prefix) 인 L과 H\* 의 복합에 의해서 대조성이 표시되고, 주 성조인 H\* 에 의해서 초점성이 음성적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대조의 의미는 대조주제에만 관여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Pierrehumbert (1980) 와 P&H 의 기본 정신인 합성성의 원리에 의하면 L+H\* 인 복합 음조는 다른 경우에도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요

<sup>14</sup> 참고로 P&H 가 제시하는 저음강세인 L\* 의 의미는 “salience without predication”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세히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지닌다고 한다.

L\* 는 (i) 화자가 강세받는 표현을 두드러지게 (salient) 표시하지만, (ii) S(화자) 와 H (청자) 간의 상호 믿음 (mutual belief) 에 더해져야 된다는 서술 (x=George) 을 하지는 않음.

<sup>15</sup> Jerry Hobbs (1990) 의 표현을 빌면, L+H\* 의 의미는 L prefix 가 H\* 에 첨가된 의미로서 “you might think this information is not new but it is really new and must be added to the mutual belief..” 라고 주장하는데, 이 해석 중 앞부분 “you might think this information is not new..” 부분이 but 뒤의 의미와 대조를 이루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들과 결합되어 대조주제가 아닌 다른 의미로 도출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측은 사실로 판명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초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6) A: Mary took Bill to the movies.

B: No, Mary took [JOHN]<sub>F</sub> to the movies.

L+H\*      L    L%

이때의 초점인 John은 앞의 Bill과 대조되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대조와 초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음조는 단순 음조인 H\*가 아닌 L+H\*의 복합 음조로 발화된다. 대조주제인 B-강세의 L+H\*와 같은 운율과 의미를 공유한다. 대조주제와의 차이점은 뒤에 나오는 운율인데 상승의 억양(LH%)으로 끝나는 대조주제와 달리 아래로 하강하는 억양(L%)으로 끝나게 되어 이 부분이 대조주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흔히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이라고 부르는 경우로서 Jackendoff의 A-강세 억양과 비슷하나 단순 A-강세는 대조성이 없이 H\*의 피치강세로서 ‘초점’의 의미만을 가지나, 이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의 경우는 L+H\*에 의해 대조의 의미가 첨가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 현상과 운율간의 상관관계가 된다.

(27) a. 초점(focus): H\*

b.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 L+H\*LL%

c.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 L+H\*LH%

어쨌든 이 대조 초점은 대조주제인 B-강세와는 음조나 의미가 서로 구별되나, 중요한 점은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이나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가 공통적으로 L+H\*의 운율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대조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강세 표현에 모두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의 기능을 하여, 초점의 의미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대조주제도 일반적인 초점과 마찬가지로 초점의 기능인 정체 확인 서술의 의미적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어에서 대조주제인 B-강세가 포함하는 L+H\*의 운율적 요소는 H\*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성을, 그리고 L의 점두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P&H가 제시하는 각 운율적 요소들에 대한 해석에 의해 음성학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이제 대조초점과 대조주제의 차이가 드러나는 뒷부분의 운율적 요소에 주목해 보자. P&H의 분석 체계에서 이 둘을 구분해주는 운율적 요소는 억양 구절(international phrase)의 경계를 표시해주는 경계 음조(boundary tone)라고 불리는 요소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 경계 음조의 해석이 앞에서 대조주제의 기능으로 제안한 ‘의미적 조건절 형성 기능’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이도록 하겠다.

#### 4.4 의미적 조건절 형성의 근거

4.4.1 대조주제와 대조초점의 경계 음조 (boundary tone). 경계음조 (boundary tone) 라는 음운 요소는 억양 구절 (intonational phrase) 의 경계를 알려준다. 일반적인 초점을 표시하는 A-강세는 H\*로 시작하여 L로 하강하며 끝나는 운율로서 L%의 경계음조 (boundary tone)로 표시된다 (%는 경계 음조 표시). 이 하강의 경계음조의 해석으로 P&H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the more final lowering, the more the sense that an utterance “completes” a topic”의 기능으로써, 이 경계음조로 끝나는 발화는 주어진 주제를 완결 짓는 기능을 하고 그 하강의 정도가 강할수록 완결의 의미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대조주제인 B-강세는 L%로 하강하며 끝나는 대조초점 (contrastive focus) 이나 A-강세와는 달리 H%의 경계음조로서 상승되어 끝나는 형상이다. 구절음조 (phrasal tone)인 L과 합해지면 LH%의 경계음조 형태를 이룬다.<sup>16</sup> 이 LH%의 경계음조에 대한 해석으로, P&H는 미완성 (incompleteness)의 의미와 함께 다음에 나올 내용과 위계적 관계 (hierarchical relationship)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 의미를 P&H는 다음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 (28) A: The train leaves at seven  
           H\*  H\*  H\* L H%  
 B: It'll be on track four.  
           H\*          H\* LL%

문장 (28A)의 상승 경계음조인 H%는 “전방 지시 (forward reference)”의 기능으로서 구체적으로 P&H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this utterance will be completed by a subsequent utterance...”의 의미, 즉, H%로 끝나는 주어진 발화가 앞으로 나올 발화에 의해 완결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달리 표현하면, Grosz & Sidner (1986)의 “우위 관계 (dominance relationship)”를 가짐으로써 H%의 상승어조로 끝나는 앞 문장에 뒷문장이 의존하여 해석되어, 뒤에 나오는 문장인 (28A)의 의미는 (28B)의 의미를 종속 (dependent)시킨다. 즉, ‘기차가 7시에 떠난다면, 그 기차는 4번 트랙에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8B)는 다음의 인용에서 제시된 대로 앞에 나온 내용, 즉 (28A)의 내용에 관련하여 해석된다.

- (29) “... L boundary tones indicate that the segment is to be interpreted with respect to what has come before.”

<sup>16</sup> 저음의 구절 음조인 L Phrasal tone은 L&H에 의하면 “...emphasizes the separation of the current phrase from a subsequent phrase...” 즉, 현재의 구절과 다음에 나올 음운적 구절의 구별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A-강세는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 B-강세는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역할을 하는 함수 관계의 의미를 갖는다는 Jackendoff (1972)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대조주제인 B-강세의 경계음조 LH%는 독립 변수의 역할을 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종속 변수인 A-강세의 초점의 의미 해석의 ‘조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B-강세로 표시되는 대조주제의 의미는 입력 값을 표시하는 독립변수로서 ‘조건’을 제시하고 A-강세에 의해 표시되는 초점의 의미는 그 독립 변수의 입력 값에 따라 달라지는 출력 값의 ‘결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의존성의 관계는 주제가 문장의 의미 구조를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어서 그 중의 조건절을 형성한다는 3절에서 제안한 주제어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운율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P&H가 대조주제의 의미와 관련 지어 제시한 의미 해석이 아니고, 음운적 요소의 일반적 의미로 제시한 것인데도, 대조주제의 의미의 각 부분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여 3절에서 제시한 대조주제의 전체 의미를 도출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시한 대조주제의 의미적 분석의 타당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각 운율적 요소들에 대한 P&H의 해석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B-강세와 A-강세로 이루어진 문장, 달리 표현하면, 대조주제와 초점으로 이루어진 (2B)와 같은 문장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면 (30a)와 같은 배경 의미와 (30b)와 같은 초점 의미가 형성된다.

- (30) [Fred]<sub>CT</sub> ate [the beans]<sub>F</sub>  
 L+H\*LH%      H\*LL%  
 a. x ate y  
 b. x= Fred (not anybody else)     $\rightarrow$     y=the beans  
       L+H\*의 기능                            LH%의 기능    H\*의 기능

B-강세로 표시된 초점과 A-강세 초점은 둘 다 초점으로서 (30a)와 같은 초점들에 해당하는 열린 명제를 주어진 정보로 가지고, 이 열린 명제의 변항 x와 y에 대하여 각각 정체확인서술(x=Fred, y=the beans)을 함으로써 ‘초점’ H\*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B-강세의 접두음 L은 Fred와 담화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조’의 의미를 첨가한다. B-강세의 경계음 H%는 x=Fred가 ‘조건절’을 구성하도록 하여 독립변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대조주제의 세가지 의미 측면인 ‘초점성’, ‘대조성’, ‘주제성’의 의미가 도출된다. A-강세를 동반하는 y=the beans의 정체확인서술은 하강의L%의 경계음조를 통해 의미적 ‘결과절’에서 발생하여 조건절에 대한 종속변수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어진 주제에 대한 완결의 의미를 표시한다. 이는 3절에서 제시된 대조주제와 초점의 의미를 그대로 뒷받침하는 해석이 된다.

이상으로 B-강세의 경계음조인 LH%가 주제어의 ‘의미적 조건절’ 형성의 기능에 대한 근거가 됨을 보았다. 다음에는 대조주제의 조건절 형성에 대한 추가 증거

로서 한국어와 영어의 상응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4.4.2 한국어와 영어의 상응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근거.** 다음의 영어 예문을 보면 초점인 Bill에 나타나는 운율은 B-강세로서 대조주제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주제격 조사인 ‘-은’으로 표시하여 ‘Bill은’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뿐 아니라 ‘Bill이라면’, 혹은 ‘Bill이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31) [Bill] would solve the problem. (from von Fintel 1994)

L+H\*LH%

(32) Bill은/Bill이면/Bill이라면 그 문제를 풀것이다.

이 번역을 형태소 별로 분석해 보면 N+이+(라)+면으로 이루어져 ‘-이’는 계사(copula)로서 술어의 역할을 하고 조건절 어미 ‘-면’이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정체 확인 서술의 의미로서 초점의 의미 기능을 하고 ‘-면’은 조건절의 의미를 불러온다. 이는 바로 앞에서 제시한 대조주제의 의미, 즉 ‘조건절에서의 초점’이라는 의미적 기능과 일치한다. 즉, 영어의 대조주제인 B-강세가 의미하는 바를 한국어로 옮기다 보면 ‘N은/는’과 ‘N이면’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주제격 조사 ‘-은/는’의 의미가 ‘서술’의 의미와 ‘조건절’의 의미로 이루어진 ‘-이면’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대조주제의 의미, 즉 의미적 조건절 내에서의 정체확인 서술 (identificational predication)이라는 분석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대조주제어가 대조성과 초점성을 동시에 지니는 [+F, +T]의 자질로 규정되는 범주임을 보았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F], [+T]의 두 정보자질로 네 가지 가능한 정보 범주를 표현하였고, 대조주제어는 [+F, +T]의 자질로 이루어진 정보 범주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음성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조주제의 초점자질인 [+F]의 기능인 ‘정체확인 서술’ (H\*로 표시), 주제자질인 [+T]의 기능인 ‘의미적 조건절 형성의 기능’ (LH%로 표시)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였고, 추가적으로 ‘대조’의 기능의 근거도 복합 강세인 L+H\*에 의해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33) a. 초점성 [+F]: 피치강세H\*

b. 대조성: L+H\*<sup>17</sup>

<sup>17</sup> 한 심사자의 지적대로 대조성은 주제나 초점의 자질로는 예측을 못한다. 그러나 [+T, +F]의 성질을 갖는 대조주제범주는 반드시 대조성이 나타난다. 즉, 주제성과 초점성을 동시에 가지는 구문은 반드시

## c. 주제성[+T]: 영어의 상승 경계음조 LH%, 한국어의 ‘은/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T] 자질과 [+F] 자질을 다음과 같은 담화적, 의미적, 통사적, 음성적 특질로 정리할 수 있다.

## (34) [+F] 자질:

- (i) 통사적 구성소가 지니는 자질이다.<sup>18</sup>
- (ii) 담화적으로 이전 문맥에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문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iii) 음성적으로 고성조의 피치 H\*로 표시된다.
- (iv) 의미적으로 정체가 미확인된 구 변항(old variable)의 정체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되, 새로운 지시체와의 상등관계의 서술 (identificational predic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 (35) [+T] 자질:

- (i) 통사적 구성소가 지니는 자질이다.
- (ii) 담화적으로 정보의 신구성을 확일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F] 자질에 따라 구정보일 수도 신정보일 수도 있다. (일반주제의 경우는 구정보(혹은 구정보로 간주된 정보)를 지칭한다. 대조주제의 경우는 선행하는 구정보(예를 들어, (21)의 담화에서 ‘the examples’)의 일부(예를 들어, ‘these examples’)를 지칭(refer)함으로써 구정보의 나머지 일부와 ‘대조’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언어 표현 자체는 처음 나오는 표현이므로 신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이 신정보의 속성은 대조주제(L+H\*LH%)에 포함된 H\*와 연계된 초점의 기능인 [+F]의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대조성을 가지는 대조주제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일반주제인 [+T, -F]인 경우는 대조성이 없어야 한다. 이미 언급된 선행사를 그대로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T]와 [+F]의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구문의 경우 대조성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T, +F]인 일반초점이나 대조초점의 경우에는 대조성이 선택사항으로 이 경우는 대조성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대조초점의 경우 대조성은 의미적으로도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예문 (26)과 같은 대조 초점의 경우는 앞에 나온 ‘Bill’과의 대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John’에 대조 운율인 L+H\*로 발화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단순한 H\*로 발화해도 가능한 운율이고 또 의미적으로 반드시 다른 것과 대조를 이루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다. 즉, 앞에 어떤 존재가 나왔던 상관없이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존재의 정체는 John이라는 해석만 있으면 초점의 의미는 완성이 된다. 그러나 대조주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이미 나온 큰 집합 중의 일부만을 제시해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와의 대조의 의미를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이로 인하여 대조성은 [+T, +F]에서는 따라 나오는 성질이 되지만, [-T, +F]의 경우에는 나와도 안 나와도 의미적으로도 운율적으로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예측하지 못할 순수 화용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조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Lopez (2009)는 대조성에 대하여 필자와는 다른 흥미로운 관찰을 하고 있다.

<sup>18</sup> 음절에 구현된 음성적 강세가 통사적 구성소로 투사되는 과정은 Selkirk 1996, Schwartzchild 1999의 ‘F-표시(F-marked)’의 정의 참조.

- (iii) 음성적으로는 상승(LH%)의 경계음조로 끝난다. (대조주제의 경우는 구정보의 일부를 지칭하므로 ‘대조’의 의미와 ‘초점’의 의미를 이루는 L+H\*의 강세로 표시된다. 반면, 일반주제의 경우 항상 구정보 전체를 다시 지칭하기 때문에 L\*의 저성조로 표시된다. 한국어는 조사 ‘-은/는’으로 표시되어 대조주제는 강세와 함께, 일반주제는 무강세로 발화된다.)
- (iv) 의미적으로는 조건절이나 when 절과 같이 문장 전체의 배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일반주제어에 대한 의미적 음성적인 분석과 규명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절에서 논의한대로 일반주제어는 서구어에서 형태소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운율적으로도 두드러진 표식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도 형태소로 드러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제어는 그 의미적 통사적 실체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연구자들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의 (35)의 정리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사실은 일반주제어는 대조주제와는 달리 대조성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구정보이거나 구정보로 간주되는 정보라는 사실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음성적으로도 H\*가 아니고 L\*로 구현되며 그렇기 때문에 초점성이 발생하지 않아 [+F]가 아닌 [-F]의 자질을 갖는다. 반면 대조주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의 조건이나 배경을 형성하는 의미적 역할이나 Reinhart의 ‘aboutness’와 같은 주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절 형성 기능은 대조주제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듯 하다. 그런 점에서 일반주제도 대조주제와 같이 운율적으로 상승의 경계음조 억양 H%로 끝나는 형상을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제어에 대한 의미적, 음성적 분석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 < 참고문헌 >

- Bolinger, Dwight L. 1961. Contrastive Accent and Contrastive Stress. *Language* 37, 87-96.
- Büring, D. 1994. Topic. In Bosche and van der Sandt (eds.), *IBM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Logic and Linguistics*, 2, pp. 271-80.
- Büring, D. 1997. *The Meaning of Topic and Focus: the 59th Street Bridge Accent*. Routledge, New York.
- Büring, D. 2003. On D-Trees, Beans, and B-accents. *Linguistics & Philosophy*, pp. 511-545.
- Choi, H-W. 1996, 1999. *Optimizing Structure in Context: Scrambling and Information Structure*. CSLI.

- Chomsky, N.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D. D. Stein and L. A. Jakobovits (ed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183–16.
- Grosz, B. and C. Sidner. 1986. Attention, Intention, and the Structur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12, 175–204.
- Hajicova, E., B.H. Partee, and P. Sgall. 1998. *Topic-Focus Articulation, Tripartite Structures, Semantic Content*.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Han, C. 1998. Asymmetry in the Interpretation of -(n)un. In *Proceedings on the Seventeenth Conference on Japanese/Korean Linguistics*, 7. CSLI.
- Hobbs, J. 1990. The Pierrehumbert-Hirschberg Theory of Intonational Meaning. In P. R. Cohen, J. Morgan, and M.E. Pollo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MIT Press, pp. 313–323.
- Jackendoff, N.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 Kenesei, Istvan. 2006. Focus as Identification. In Molnar and Winkler (eds.), *The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Gruyter, Berlin, pp. 137–168.
- Kiss, E. 2006. Focussing as Predication. In Molnar and Winkler (eds.), *The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Gruyter, Berlin, pp. 169–193.
- Kiss, K. E. 1998. Identificational Focus vs. Information Focus. *Language* 74, 245–273.
- Krifka, M. 1992.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multiple focus constructions. In Joachim Jacobs (ed.), *Informationsstruktur und Grammatik*.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pp. 17–53.
- Krifka, M. 2006. Association with Focus Phrases. In V. Molnar and S. Winkler (eds.), *The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 Gruyter, Berlin, NY, pp. 106–136.
- Kuroda, S. Y. 1972. The Categorical and Thetic Judgement.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L., Carlson. 1983. *Dialogue Games: An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 Reidel, Dordrecht.
- Lee, C. 1998. Contrastive topic: A Locus of Interface – Evidence from Korean and English. In K. Turner et al. (eds.),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Elsevier Science.
- Lopez, L. 2009. *A Derivational Syntax for Information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Paul, H. 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Niemeyer.
- Pierrehumbert, J. and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E. Pollo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MIT Press, pp. 271–311.
- Pierrehumbert, Janet.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53–94.
- Rochemont, M. 1986. *Focus in Generative Grammar*. John Benjamin, Amsterdam.

- Rooth, M. 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Rooth, M. 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Rooth, M. 1996. Focus. In Shalom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 Rullman, H. 1995. *Maximality in the Semantics of Wh-Constructions*.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Schwartzchild. 1999. GIVENness, Avoid F and other Constraints on the Placement of Accent. *Natural Language Semantics* 7.2, 141–77.
- Selkirk, E. 1996.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and Phrasing. In Goldsmith (ed.),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Blackwell, Cambridge, pp. 550–69.
- Steedman. 1991. Structure and Intonation. *Language* 67, 260–296.
- Steedman. 2000. *The syntactic Process*. MIT Press, Cambridge.
- Vallduvi. 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Garland Press, New York.
- Von Stechow. 1994. *Restrictions on Quantifier Domains*.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Wee, H-K. 1996. Felicity Condition of Korean and English Contrastive Topic.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 11)*, pp. 459–468.
- Wee, H-K. 199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Contrastive Topic in Korean and English. In *Proceedings on the Seventh Conference on Japanese/Korean Linguistics*, 7. CSLI.
- Wee, H-K. 1999. *Definite Focus*. Ph.D.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
- Wee, H-K. 2001. *Sentential Logic, Discourse, and Pragmatics of Topic and Focus*. Ph.D. thesis, Indiana University.
- Wee, H-K. 2003. Function of Focus as the Semantic Predicat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 453–474.
- Wee, H-K. 2007a. Contrastive Topic as the Sole Focus. *Linguistics* 49, 115–142.
- Wee, H-K. 2007b. 초점 현상 분석에 의한 통사구조, 정보 구조, 담화구조의 관련성 탐구. *생성 문법 연구* 17.2, 123–164.

접수 일자: 2010년 10월 29일

게재 결정: 2010년 11월 12일